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 인해 품사를 혼동할 수 있다. 예컨대, ‘이것은 보관하고, 나머지는 파괴해라.’에서 ‘나머지’가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여 ‘이것’과 같은 품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명사로서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어떤 사물이든 대신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명사로서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이라는 의미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길게 남기다.’와 ‘길이 남기다.’에서 ‘길게’와 ‘길이’는 ‘길-’의 의미와 관련되므로, 모두 형용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길게’는 ‘길-’에 어미 ‘-게’가 결합한 형용사의 활용형이고, ‘길이’는 ‘같이’, ‘깨끗이’처럼 ‘길-’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이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품사 분류 시에 유의해야 한다. ‘박자가 늦다.’에서 ‘늦다’는 속도가 느림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였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에서는 어간 ‘늦-’에 어미 ‘-는-’이 결합하여 전형적인 동사의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늦다’는 형용사, 동사의 두 가지 품사로 쓰인다. 다른 사례로 ‘열’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므로 수사로만 분류하기 쉽다. 하지만 ‘열 명이 왔다.’에서 ‘열’은 관형사인 ‘한’이나 ‘두’와 같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형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보다는 낫다.’의 ‘그’는 대명사로 분류하고, ‘그 책보다는 낫다.’의 ‘그’는 관형사로 분류한다.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대응하는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벼개를 노피 베텔고[베개를 높이 베고 있고]’의 ‘노피’는 현대 국어의 ‘높이’처럼 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사로만 쓰이는 ‘새’가 중세 국어에서는 ‘새를[새것을]’처럼 ‘새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도 쓰였다. 이처럼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대응하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품사가 다른 경우도 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만’의 의미로 쓰이던 명사 ‘믄’이 현대 국어에서는 접사 ‘만-’이 된 것처럼 ㉢ 중세 국어에서는 단어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품사 분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의 장소에서도 잘 ㉡크는 식물이 ㉢둘이 있다.
- 크기가 ㉣큰 무가 ㉡여러 개가 있어서 ㉢반씩 나누었다.

- ① ㉠과 ㉢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 ② ㉠과 ㉢은 어떤 사물을 가리킨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 ③ ㉡과 ㉣은 어간에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 ④ ㉡과 ㉣은 대상의 수량을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 ⑤ ㉡과 ㉣은 어미가 결합하며 뒤에 오는 성분을 꾸며 준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자 료 >

- (가) 중세 국어: 어느(어느 + |) 解脫이 아니리오
[현대어 풀이: 어느 것이 해탈이 아니리오]
- (나) 중세 국어: 기피(깊- + -이) 잇는 龍이 소리 업고
[현대어 풀이: 깊이 있는 용이 소리 없고]
- (다) 중세 국어: 窓으로 여서(열- + -어)
[현대어 풀이: 창으로 엿보아]
- (라) 중세 국어: 날(날 + 울) 사후라
[현대어 풀이: 날것을 썰어]
- (마) 중세 국어: 니르고져 흥 배(바 + |) 이셔도
[현대어 풀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 ① (가)에서 중세 국어의 ‘어느’는 ㉠의 사례로, 현대 국어의 ‘어느’처럼 관형사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중세 국어의 ‘기피’는 ㉡의 사례로, 현대 국어의 부사 ‘깊이’와 달리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다)에서 중세 국어의 ‘열-’은 ㉢의 사례로, 현대 국어의 접사 ‘엿-’과 달리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 ④ (라)에서 중세 국어의 ‘날’은 ㉣의 사례로, 현대 국어의 접사 ‘날-’과 달리 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 ⑤ (마)에서 중세 국어의 ‘바’는 ㉣의 사례로, 현대 국어의 ‘바’와 달리 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아래의 단어들을 발음할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각각 무엇인지 찾고, ㉠~㉣ 중 두 가지가 일어나는 예를 생각해 보자.

흥화덕[흐와덕], 드넓다[드닐마]
끓졌다[큰켄따], 걸치레[겉치레]

- ‘흥화덕’과 ‘드넓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
- ‘흥화덕’과 ‘끓졌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
- ‘끓졌다’와 ‘걸치레’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
- ‘끓졌다’와 ‘드넓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

- ① ㉠, ㉡이 모두 일어난 예: 밝히다[발키다]
- ② ㉠, ㉢이 모두 일어난 예: 닭고기[닥꼬기]
- ③ ㉠, ㉣이 모두 일어난 예: 깎고서[깍꼬서]
- ④ ㉡, ㉢이 모두 일어난 예: 술하다[수타다]
- ⑤ ㉡, ㉣이 모두 일어난 예: 단팔죽[단판죽]

38.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 중에는 ㉠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하는 것이 있고, ㉡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수식하는 것도 있다. 한편 ㉢ 각각의 어근이 원래 지닌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다.

ㄱ. 시냇물 주위로 논밭이 펼쳐진 경치가 아름답다.
 ㄴ. 오늘 오랜만에 점심으로 보리밥 한 그릇을 먹었다.
 ㄷ. 버스가 돌다리를 건너 우리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ㄹ. 지난밤 폭설로 인해 눈이 얼어 길바닥이 미끄러워졌다.
 ㅁ. 그는 피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 ① ㄱ의 '논밭'은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② ㄴ의 '보리밥'은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③ ㄷ의 '돌다리'는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④ ㄹ의 '길바닥'은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⑤ ㅁ의 '피땀'은 두 어근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므로 ㉢에 해당한다.

39.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관형사절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데 이때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아래의 그림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안은문장이 안은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가? → 아니요 (가)

↓ 예

안은문장에 생략된 성분이 있는가? → 아니요 (나)

↓ 예

(다)

[자료]

- ㄱ. 나는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 ㄴ. 책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기는 불가능하다.
- ㄷ.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갔다.
- ㄹ. 악어가 물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 ㅁ. 형이 내게 아홉 시까지 집에 오라고 말했다.
- ㅂ. 나는 그 사람이 너를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 | | (가) | (나) | (다) |
|---|------|------|------|
| ① | ㄱ, ㄴ | ㄹ, ㅂ | ㄷ, ㅁ |
| ② | ㄱ, ㄷ | ㄴ, ㅁ | ㄹ, ㅂ |
| ③ | ㄴ, ㅁ | ㄹ, ㅂ | ㄱ, ㄷ |
| ④ | ㄴ, ㅂ | ㄷ, ㄹ | ㄱ, ㅁ |
| ⑤ | ㄹ, ㅁ | ㄴ, ㅂ | ㄱ, ㄷ |

[40~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방송 후 진행자가 작성한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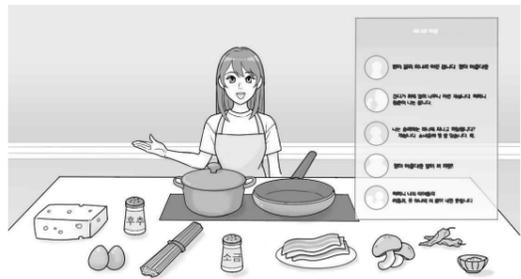
(가)

안녕하세요. '멋대로 맛있게'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하셨습니다. 맛난 요리를 정성스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지난주 방송의 시청자 투표 결과대로 카르보나라를 만들 거예요. 우리 방송은 실시간이잖아요? 혹시 제가 진행이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기! 그럼 실시간 채팅 보면서 방송할게요.

사과: 오늘 요리 과정 다 메모할 거예요! 근데 조리대가 잘 안 보여요.

[A]

화면에 제 얼굴만 크게 나오고 있었네요. (카메라의 높이를 조절하며) 사과 님, 이제 조리대 잘 보이죠?



재료 소개 차례입니다. 경성 치즈, 달걀, 후추가 필요하고요, 스파게티 면, 소금, 베이컨도 있어야 해요. 필수 재료는 아니지만 표고버섯과 말린 고추, 다진 마늘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끓는 물에 스파게티 면을 8분간 삶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꽃잎: ○○ 님, 지난번 방송에서도 경성 치즈가 나온 적이 있죠? 경성 치즈가 뭐예요?

[B]

꽃잎 님, 경성 치즈는 수분 함량이 적은 단단한 숙성 치즈예요. 경성 치즈는 고소하고 풍미가 있어 카르보나라 재료로 적절해요.

면이 익는 동안 적당한 양의 베이컨을 중간 불로 볶을 건데, 베이컨을 볶다가 필수 재료가 아닌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볶으려고 해요. 뭐가 좋을까요?

[C]

들판: 저는 표고버섯과 다진 마늘이 어우러져 나는 향이 좋아요.

들판 님이 말씀한 표고버섯과 다진 마늘, 당첨! 베이컨이 노릇해지고 있네요. 기름이 많이 나오니 기름을 조금 닦고 나서 표고버섯과 다진 마늘을 넣어 줄게요. ㉢쉽게 타니까 주의하면서 중간 불로 바싹 볶을 거예요.

나무: ○○ 님, 스파게티 면 삶을 때 소금 넣어야 하는 거 맞죠? 아까 안 넣으셨던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이고! 제가 실수를..... (시계를 보며) 면을 삶은 지 4분 됐군요. 여러분은 소금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금을 넣을게요. 나무 님, 감사합니다.

명명: 그런데 면을 삶을 때 꼭 소금을 넣어야 하나요?

명명 님, 면에 소금 간이 배어야 하니까 간간한 소금물로 면을 삶아야 해요.

남남: 삶는 물이 짜면 면이 더 쫄깃해진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더라..... ○○ 님,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D]

네! 간간한 소금물로 면을 삶으면 면이 그 물을 점점 머금고 나서 면 속 수분이 일부 소금물로 빠져나가고 면이 쫄깃해져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경성 치즈 40그램을 강판

에 갈 거예요. 몇 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데, 그럴 때면 방송 진행이 더더진다고 나가 버리는 시청자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경성 치즈를 갈아 왔어요. (갈아 둔 치즈를 꺼내며) 치즈랑 달걀노른자, 간 후추를 한데 넣고 섞어 줄게요. 집게나 젓가락으로 둥글게 휘젓기만 하면 쉽게 녹진한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8분이 지났습니다. 팬의 불을 끈 다음, ㉔ 면을 팬에 얹고서 면 삶은 물을 서너 국자 팬에 넣어요. 그리고 팬에 소스를 넣고 팬을 앞뒤로 흔들면서 집게로는 면을 집어 동그라미를 그리며 소스와 섞어 주세요. ㉕ 이때 팬의 온도가 높으면 달걀노른자가 다른 재료와 어우러지기 전에 익어 버리니 주의해야 해요.

푸름 방금 방송을 놓쳤어요. 집게로 면이랑 소스랑 섞는 거 다시 보고 싶어요.

[E] 푸름 님, 팬은 앞뒤로 흔들면서 집게로는 면을 집어 동그라미를 그리며 섞어 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카메라 가까이 갖다 대며) 카르보나라를 완성했습니다. 고소한 치즈 냄새에 표고버섯과 마늘에서 나는 향이 은은하게 더해져 콧속을 채우는군요! 저만의 카르보나라 요리법을 정리해서 제 누리 소통망 계정에 올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두 시에 잊지 말고 만나요.

(나)

구독자들이 직접 카르보나라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요리법을 정리해서 누리 소통망에 올려야겠어. ㉑ 재료를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요리에 처음 도전하는 구독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재료별 적정 사용량을 표시해 주고, 요리 과정을 고려하여 재료를 제시해야지. ㉒ 요리법을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그림으로 간추려서 요리 과정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방송 녹화본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어.

40. (가)에 반영된 진행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가 시청각으로 전달되니, 필요에 따라 후각 정보를 말로 표현해야겠어.
- ②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니, 방송 중에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 양해를 구해야겠어.
- ③ 주기적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니, 시청자에게 다음번 방송도 시청해 달라고 요청해야겠어.
- ④ 방송 진행이 늘어지면 접속자 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방송 전에 끝내 두어야겠어.
- ⑤ 혼자서 다수의 접속자를 상대하니, 방송에 접속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안내해야겠어.

41. [A]~[E]에 나타난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사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밝히고, 진행자는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② [B]: ‘꽃잎’은 지난번 방송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진행자는 시청자와 정서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들판’은 방송 내용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고, 진행자는 방송 순서를 변경하여 안내하고 있다.
- ④ [D]: ‘남남’은 자신이 궁금해하는 점을 언급하고, 진행자는 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E]: ‘푸름’은 이미 끝난 동작을 다시 반복하기를 요청하고, 진행자는 자신이 그 동작을 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작성한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이다. 작성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멋대로 맛있게')

• 카르보나라 재료 (1인분 기준)

스파게티 면	소금	베이컨	표고버섯	다진 마늘	달걀노른자	경성 치즈	후추
80g	10g (1ℓ당)	40g	2개	5g	2개	40g	5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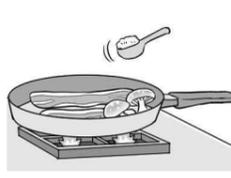
• 카르보나라 요리법

면 삶기
(소금 빼먹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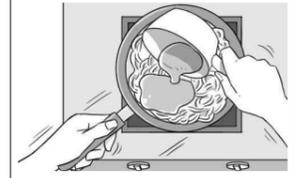
8분

팬에서 베이컨을 볶다가
노릇해지면 표고버섯,
다진 마늘을 넣기
(중간 불로 볶기)



5~6분

불을 끄고 팬에 면, 면 삶은
물, 소스를 넣어 섞기
(팬의 온도가 높지 않게
하기)



1분

* 소스 만들기를 보고 싶으면 **클릭!**
(동영상의 해당 부분으로 바로 연결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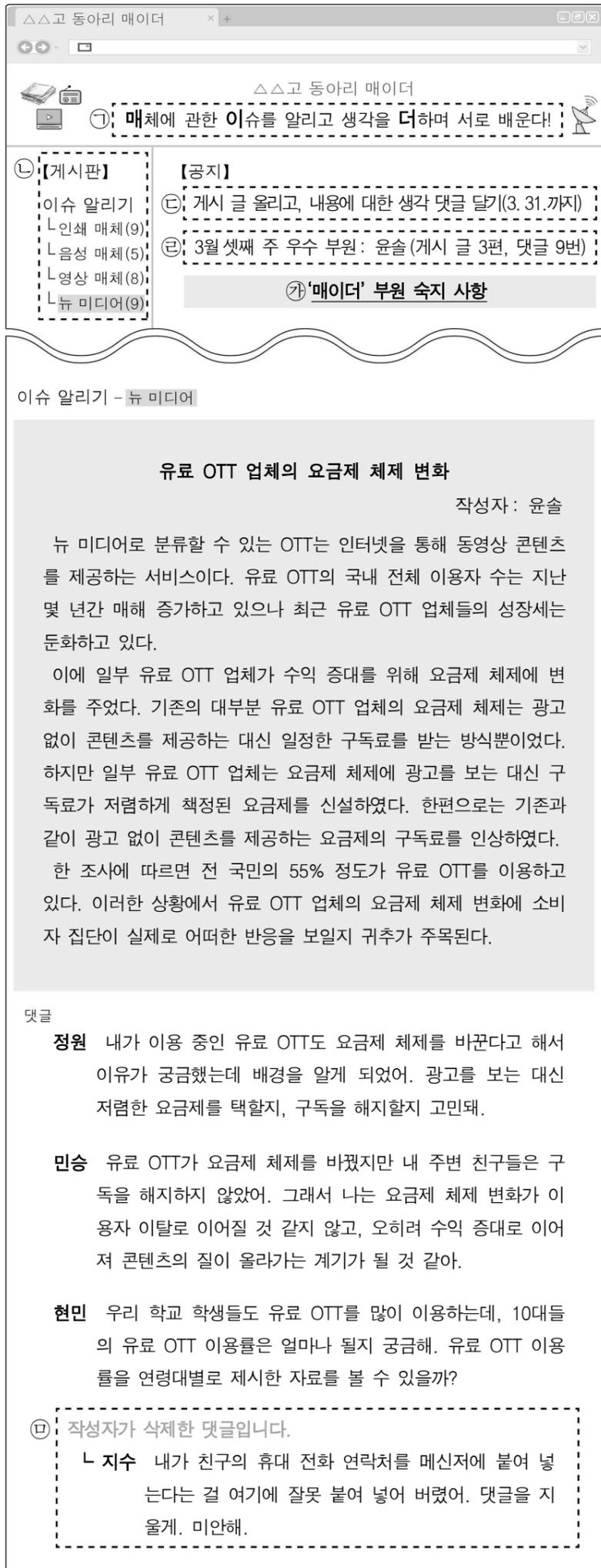
👍 좋아요(206) 💬 댓글(34)

- ① 재료별 적정 사용량을 표시하기로 한 ㉑에는 재료의 분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치를 활용하여 나타내자.
- ② 요리 과정을 고려하여 재료를 제시하기로 한 ㉑에는 재료들이 쓰이는 요리 과정에 따라 재료들을 구분하여 드러내자.
- ③ 요리법을 간략한 설명으로 안내하기로 한 ㉒에는 요리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을 괄호 속에 간단히 제시하자.
- ④ 요리법을 그림으로 간추려 제시하기로 한 ㉒에는 방송에서 쓰이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소요 시간도 제시하자.
- ⑤ 방송 녹화본을 볼 수 있게 한 ㉒에는 그림에 표현되지 않은 요리 과정을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제시하자.

43. ㉑~㉓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조사 ‘대로’를 사용하여 카르보나라가 시청자 투표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㉒: 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물을 끓이는 것이 면을 삶기 위한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㉓: 어미 ‘-니까’를 사용하여 재료를 볶는 중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있다.
- ④ ㉔: 어미 ‘-고서’를 사용하여 면을 팬에 얹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㉕: 어미 ‘-으면’을 사용하여 재료들이 어우러지기에 알맞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44 ~ 45] 다음은 온라인 카페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4. <보기>는 ㉠을 클릭한 화면이다. 이를 바탕으로 ㉠ ~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이더’ 부원 숙지 사항

[동아리 소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매체에 관한 이슈를 서로 알리고, 알게 된 것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며 오늘날 매체 환경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원은 공지를 확인하고 제시된 활동을 수행합니다.

[규칙]
- 동아리 부원들은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게시판을 구성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각 항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글만 올립니다.
- 동아리 활동과 무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 ① <보기>의 ‘동아리 소개’를 보니, ㉠은 활동 목적을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동아리명에 포함되는 글자를 부각하고 있군.
- ② <보기>의 ‘규칙’을 보니, ㉡은 게시판 항목을 구별하여 매체 유형에 맞는 글을 올리도록 하고 있군.
- ③ <보기>의 ‘동아리 소개’를 보니, ㉢은 부원이 수행하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카페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을 안내하고 있군.
- ④ <보기>의 ‘규칙’을 보니, ㉣은 특정 부원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부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군.
- ⑤ <보기>의 ‘규칙’을 보니, ㉣은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사적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고 있군.

45. 위 화면을 바탕으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솔’은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에 대한 이용자들의 찬반 의견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 ② ‘현민’과 달리, ‘민승’은 주변을 관찰한 바를 토대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였다.
- ③ ‘정원’과 달리, ‘현민’은 자신이 새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의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④ ‘윤솔’과 ‘현민’은 모두, 통계 자료를 토대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를 묻고 온 배경 상황을 이해하였다.
- ⑤ ‘정원’과 ‘민승’은 모두, ‘윤솔’의 글을 토대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에 의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에서 의도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의도적으로 들어온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들어온 경우로 유형화하였다.

41.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나)의 3문단에서 빠른 성장과 번식 능력,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과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특성을 드러내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서술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고쳐 쓴다.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조사를 교체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지 않고 해당 문장을 수정하였다.

[오답풀이] ② <보기>의 두 번째 문장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인 '빈틈없이'와 '철저한' 중 '빈틈없이'를 삭제함으로써,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수정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였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내용을 생성한다.

초고에서는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이 피상적이라 학생들이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에서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2문단에서 학생은 자신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진로 프로그램이 피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⑤ 초고에서는 진로의 의미를 개인의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해 얻게 되는 모든 경험과 활동으로 설명하고,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삶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만족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진로 계획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ㄱ-1은 진로 계획을 수립한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ㄴ은 ○○시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체험 센터를 개관하였고, 해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려 주는 신문 기사 자료이다. 이 두 자료를 함께 활용해, 진로 계획을 세운 학생들에게 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이 피상적이라는 사례로 추가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③ ㄴ은 우리 학교 교사의 인터뷰 자료이다. ㄴ에서는, 진로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이 부족하고, 교사가 수업과 함께 진로 지도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ㄱ-2는 실질적인 체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음을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이다. ㄴ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함께 활용해 3문단에서 학교와 대학이 협력한 진로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선생님은 조언에서 두 가지 내용을 담으라고 하였다. 첫째는 청소년 시기에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진로와 관련한 직접 체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학교와 지역 사회의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구체적인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은 선생님의 조언 중 첫 번째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학교와 지역 사회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선생님의 조언 중 두 번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언어와 매체]

35	①	36	④	37	④	38	②	39	③
40	⑤	41	④	42	④	43	①	44	⑤
45	②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품사를 이해한다.

㉠, ㉡은 관형사로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은 관형사이고, ㉡은 명사이다. ③ ㉢은 어간에 어미 '-는'이 결합하였고, ㉣은 어간에 어미 '-ㄴ'이 결합하였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품사를 이해한다.

(라)에서 중세 국어의 '닐'에 조사 '을'이 결합할 수 있고, '닐'이 '날것'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접사 '날-'과 달리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중세 국어의 '어느'는 조사 '이'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형사로 쓰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중세 국어의 '기피'는 '깊-'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노피'와 같이 부사이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음운 변동을 탐구한다.

㉠은 자음군 단순화, ㉡은 거센소리되기,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은 된소리되기이다. '술하다[수타다]'는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술하다[수타다]'는 ㉢, ㉣이 모두 일어난 예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과 형성 방법을 파악한다.

'보리밥'은 앞의 어근 '보리'가 뒤의 어근 '밥'을 수식하는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리밥'이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한 합성어인 ㉡에 해당한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ㄴ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 ㄹ은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므로 (가)로 분류할 수 있다. ㄱ과 ㄴ은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며, 안긴문장 내에 생략된 성분이 없으므로 (나)로 분류할 수 있다. ㄱ과 ㄴ은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며 ㄱ은 안긴문장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ㄴ은 안긴문장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다)로 분류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가)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많은 접속자를 혼자서 상대하고 있지만, 방송에 접속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안내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진행자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니 진행이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줄 것을 바랐다. ④ (가)에서 진행자는 몇 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면 방송 진행이 더러진다고 나가 버리는 시청자들이 더러 있어서 경성 치즈를 미리 갈아 왔다고 하며 갈아 둔 치즈를 꺼냈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소통 양상을 이해한다.

'남남'은 스파게티 면을 삶는 물이 짜면 면이 더 쫄깃해지는 이유를 진행자에게 물었고, 진행자는 소금물로 면을 삶으면 면이 그 물을 점점 머금고 나서 면 속 수분이 일부 소금물로 빠져나가고 면이 쫄깃해진다고 하였다. 진행자는 '남남'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답풀이] ① '사과'는 진행자에게 조리대가 잘 안 보인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방송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밝혔다. 이후 진행자는 카메라의 높이를 조절하였다. 진행자는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

한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다. ③ 진행자는 베이컨과 함께, 카르보나라의 필수 재료가 아닌 것들 중 몇 가지를 함께 볶으려고 한다며 무엇이 좋을지 시청자에게 물었다. 이에 '들판'은 자신은 표고버섯과 다진 마늘이 어우러져 나는 향이 좋다고 함으로써 방송 내용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드러냈다. 이어 진행자는 '들판'이 언급한 두 가지 재료를 베이컨과 함께 볶기로 하였는데, 이는 방송 순서를 변경하여 안내한 것이 아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진행자가 (나)에 따라 작성한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는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 중 카르보나라 요리법을 안내하는 부분에서 요리법을 그림으로 간추려 제시하고 있다. 진행자는 방송에서 말린 고추가 카르보나라의 요리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말린 고추를 요리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의 ㉣에는 말린 고추가 요리 재료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말린 고추를 재료로 사용할 때의 소요 시간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가 (나)에 따라 작성한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는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 중 카르보나라 재료를 안내하는 부분에서 각 재료의 분량을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나타내었다. 이는 요리에 처음 도전하는 구독자도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을 보면 요리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의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에서 '대로'는 이번 방송에서 만들 요리로 카르보나라를 선정한 것이 지난주 방송의 시청자 투표 결과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보기>의 '규칙'에는 동아리 활동과 무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에서는 지수가 댓글에 친구의 휴대 전화 연락처를 잘못 붙여 넣어 동아리 활동과 무관한 사적 정보를 드러냈었고 관리자가 아닌 댓글 작성자인 지수가 그 정보를 삭제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동아리 소개'에는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제시되어 있고, ㉠에는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간략하게 제시되면서 동아리명에 포함되는 글자가 부각되어 있다. ④ <보기>의 '규칙'에는 동아리 부원들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에는 3월 셋째 주 우수 부원인 윤솔이 게시 글을 3편, 댓글을 9번 썼음이 드러나 있다. 이는 동아리의 특정 부원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부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다.

댓글에서 '민승'은 자신의 주변 친구들은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에도 구독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요금제 체제의 변화가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수익 증대로 이어져 콘텐츠의 질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하였다. '민승'은 자신이 주변을 관찰한 바를 토대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댓글에서 '현민'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유료 OTT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10대들의 유료 OTT 이용률을 궁금해하였다. '현민'은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지 않았다.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제 1 교시

13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소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실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맛’이라는 형태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맛이[마시]’, 비음을 제외한 자음 앞에서는 ‘맛도[만또]’, 비음 앞에서는 ‘맛만[만만]’과 같이 실현되어 각각 ‘맛’, ‘만’, ‘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형태소의 교체라고 하며, 교체에 의해 달리 실현된 형태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맛’, ‘만’, ‘만’과 같은 이형태들이 분포하는 환경은 서로 겹치지 않는데 이러한 분포를 상보적 분포라고 한다.

이형태 교체의 양상은 교체의 동기가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교체는, 말소리가 실현될 때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소의 종류를 제한하는 제약이나,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는 음소들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약 등으로 인해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체는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를 자동적 교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있다[인:따]’와 ‘잇는[인:는]’을 보면, 어간 ‘잇-’이 각각 ‘인-’과 ‘인-’이라는 형태로 실현된다. 이는 종성에 자음 ‘ㄱ, ㄴ, ㄷ, ㄹ, ㄷ, ㅂ, ㅍ’만 올 수 있다는 음운론적 제약과 비음 앞에 ‘ㄱ, ㄷ, ㅂ’과 같은 평파열음이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된 것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반면에 ‘(신발을) 신고[신:꼬]’에서 어미 ‘-고’가 ‘ㄴ’ 뒤에서 ‘-꼬’라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이는 ‘산과[산과] (바다)’에서 ‘ㄴ’ 뒤에 ‘ㄱ’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 ‘ㄴ’ 뒤에 ‘ㄱ’이 연속해서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미 ‘-고’가 ‘ㄴ’ 뒤에서 ‘-꼬’로 실현되는 것은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한, 이형태 교체의 양상은 교체를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앞서 보았던 ‘(신발을) 신고[신:꼬]’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담지[담:찌]’에서도 어미가 이형태로 교체되는데, 이들은 ‘ㄴ, ㄷ’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라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반면에 ‘(점을) 이어[이어]’에서 어간 ‘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말 ‘ㅅ’이 탈락하여 ‘이-’라는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몇’은 ‘몇이[며치]’, ‘몇도[면또]’, ‘몇만[면만]’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이형태들로 실현되었다.
- ② ‘(얼굴이) 부어[부어]’에서 어간 ‘붓-’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에 따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이형태로 실현되었다.
- ③ ‘숲과[슈과]’, ‘숲조차[슈조차]’에서 ‘숲’은 각기 다른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하지만 서로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 ④ ‘(날씨가) 굿다[굿따]’에서 어간 ‘굿-’이 ‘굳-’이라는 이형태로 실현된 것은 종성에 ‘ㅈ’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다.
- ⑤ ‘(글씨를) 적느라고[정느라고]’에서 어간 ‘적-’이 ‘정-’이라는 이형태로 실현된 것은 비음 앞에 ‘ㄱ’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다.

36.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활용하여 이형태 교체의 양상을 이해할 때, ㉠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동적 교체에 해당하는가?	규칙적 교체에 해당하는가?	
○	○	... ㉠
○	×	... ㉡
×	○	... ㉢
×	×	... ㉤

- ① ㉠: 마음씨가 **고우니**[고우니] 눈길이 간다.
- ② ㉡: 타인의 마음을 **짚는**[집는] 것은 쉽지 않다.
- ③ ㉢: **꾸중을 들어서**[드러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 ④ ㉣: 두 눈을 지그시 **감자**[감찌] 잠이 쏟아졌다.
- ⑤ ㉤: 나는 **고구마**를 땅에 **묻고**[묻꼬] 흙을 다졌다.

37.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오늘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에서 특수 어휘로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검문장**에 대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 **안긴문장** 내에서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봅시다.

- ① 나는 친척 어른님께 안부를 여쭙기가 **쑥스러웠다**.
- ② 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빈 은사님**과 저녁을 잡수셨다.
- ③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서 **앞마당**에 감나무를 심으셨다.
- ④ 머리가 하얗게 세신 할아버지께서 **멋진 옷**을 입으셨다.
- ⑤ 어머니는 삼촌이 편하게 쉬시도록 **침구**를 바꿔 드셨다.

채팅 진행자님이 화면 공유를 시작합니다.

[진행자님이 공유 중인 화면입니다.]



제가 써 본 밀랍 랩 사진이에요. 우경 대용으로 사용하니 과일이 신선하게 보관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좋네요. 밀랍 랩 사용으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 밀랍 랩을 만드는 방법은 아래를 클릭!
<https://www.△△△.com/eco>
#밀랍랩 #쓰레기줄이기 #환경보호

👍 좋아요 → 게시물 공유
 👤 82명이 좋아합니다

강사: 제시된 자료 화면은 ㉔ 밀랍 랩 활용 사례를 담은 SNS 게시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밀랍 랩을 병뚜껑 대용으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소나 과일, 샌드위치 등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활용하는 거군요. 지금까지 밀랍 랩을 만들어 보고, 밀랍 랩의 활용 방법도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세요.

승범: 강사님, 밀랍 랩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강사: 네. 뜨거운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자: ㉕ 뜨거우면 밀랍이 녹을 수도 있겠네요.

강사: 그렇죠. 그리고 밀랍은 국가 기관에서 식품 첨가물로 분류할 정도로 인체에 대체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밀랍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행자: 주의할 사항이 조금 있군요.

강사: 하지만 쓰레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저도 강사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오늘 강의는 ㉖ 우리 학교 누리집 학생회 게시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 위 강의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므로, 강사는 강의 중에 학생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진행자는 강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 ③ 시각 자료와 음성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사는 공유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화면으로 참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행자는 화면을 통해 학생의 상황을 점검하며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이 가능하므로, 진행자는 각기 다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이 강의 중에 서로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41.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좋아요' 기능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여 밀랍 랩의 실제 사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게시물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하이퍼링크로 웹사이트 주소를 제시하여 밀랍 랩 활용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특정 문구 앞에 '#' 기호를 붙여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게시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 ㉑~㉓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의존 명사 '대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동의한 바와 같이 강의가 녹화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② ㉒: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기보다 행위의 대상인 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③ ㉓: 연결 어미 '-는데'를 사용하여, 밀랍 랩을 만진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생각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 ④ ㉔: 보조 용언 '보다'를 사용하여, 밀랍 랩을 만진 것이 시험 삼아 한 행동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㉕: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밀랍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3. 다음은 위 강의를 시청한 학생들이 ㉗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회 게시판 x + - □ x

← → C 🔒

학생 1: 국가 기관을 언급하며 밀랍의 안전성을 설명해 주셔서 강사님이 알려 주신 정보에 믿음이 갔어. 그리고 밀랍 랩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서 내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좋았어.

학생 2: 강사님이 방수제로 쓰이는 밀랍의 용도를 알려 주셔서 밀랍 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니 나도 한번 밀랍 랩을 써 봐야겠어.

학생 3: 온도를 고려해야 하니 밀랍 랩은 쓰기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밀랍 랩을 활용하는 것은 강사님의 말씀대로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 ① '학생 1'은 밀랍의 특성에 대한 강사의 설명과 관련하여, 정보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② '학생 1'은 밀랍 랩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사의 설명과 관련하여, 설명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③ '학생 2'는 밀랍의 용도에 대한 강사의 설명과 관련하여, 밀랍 랩 만들기 활동이 공공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④ '학생 2'는 밀랍 랩의 장점에 대한 강사의 설명과 관련하여, 강사가 제공한 정보가 다양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학생 3'은 밀랍 랩 사용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강사의 설명과 관련하여, 밀랍 랩의 가치에 대한 강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44 ~ 45] (가)는 모바일 앱 개발 동아리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고 습관 관리 앱'의 챗봇 상담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 회성 님이 시윤 님, 지혁 님을 초대했습니다.

회성: 우리가 만든 습관 관리 앱에 대해 논의하려고 초대했어. 앱 다운로드 수가 벌써 500회를 넘었더라고.

시윤: 응. 뿌듯하더라. 그런데 개선해야 할 점도 있더라고. 그래서 앱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캡처했어. 한번 봐 봐!

구름	채팅 상담 운영 시간이 짧아요. ㉠
별빛	질문을 해도 답변이 너무 늦어요. ㉡
사랑	앱 화면이 너무 복잡해서 공지 사항을 못 찾겠어요. ㉢
마음	흔히 하는 질문도 매번 채팅 창에 입력해야 해서 번거로워요. ㉣
노을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제가 관심 있는 정보만 따로 모아 보여 주면 좋겠어요. ㉤

회성: 채팅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만 상담을 운영하니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 같아.

지혁: 챗봇 상담을 하면 어때?

시윤: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직접 해 온 채팅 상담을 인공지능이 대신 하는 거야.

지혁: 앱 화면이 복잡해서 메뉴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니 챗봇을 만들 때 공지 사항처럼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메뉴는 눈에 잘 띄게 배치하자.

시윤: 좋아.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을 채팅 창에 입력하기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메뉴도 같이 띄우자.

회성: 그것도 좋겠어. 또 자기가 관심 있는 정보만 모아서 보여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 챗봇 상담할 때 사용자에게 따른 맞춤형 정보를 함께 제공하자.

지혁: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한번 챗봇을 만들어 보자!

회성: 그래.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보자. 일정 공지할게.

㉠ ... 회성 님이 공지를 올렸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 2024. 5. xx. 17시

(나)

○○고 습관 관리 앱 챗봇 상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챗봇 ○○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원하는 메뉴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오후 10:10

내 습관 관리 공지 사항 인기 검색어 자주 찾는 질문

오후 10:10 적립된 포인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적립된 포인트는 [내 습관 관리]의 [포인트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오후 10:10

포인트 조회

오후 10:10 포인트 조회

△△△ 님의 포인트는 5,200점입니다. 오후 10:10

오후 10:11 내 포인트 순위를 알고 싶어요.

△△△ 님의 순위는 13위입니다.

포인트에 관심이 많은 △△△ 님을 위한 맞춤형 정보 오후 10:11

포인트 적립 내역 포인트 사용

여기에 궁금한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전송

4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친구 초대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대상이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화제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앞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특정 대상에 대한 답장 기능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논의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공지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에게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45.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에 대한 '시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챗봇을 만든 것이겠군.
- ㉡에 대한 '회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을 올린 즉시 답변이 가능하도록 챗봇을 만든 것이겠군.
- ㉢에 대한 '지혁'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지 사항'과 같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메뉴가 상담 시작 부분에 뜨도록 챗봇을 만든 것이겠군.
- ㉣에 대한 '시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기 검색어', '자주 찾는 질문' 메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챗봇을 만든 것이겠군.
- ㉤에 대한 '회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포인트 적립 내역'과 같이 관심사 이외의 정보를 추천해 줄 수 있도록 챗봇을 만든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롭게 살고 있어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 작가가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봉우리로 빼어나고 경지도 뛰어난 산 속에 깃들었다는 것에서 자연에 은거하여 사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주인옹이 명리에 뜻이 없어'서 '진세를 하직'했다는 것에서 부귀공명과 같은 세속적 가치에 욕심이 없어 속세를 떠난 것이 작가가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11수>에서 '두터한 밝은 달을 떠가는 구름이 가리려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에서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작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삼공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겠다고 하는 것에서 작가가 삼공과 바꾸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편안한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나)의 <4수>에서 변방에 유배를 가 '가시울 에운 곳'에서 지내며 고향이 '가깝'다면 '생각이 더'했음텐데 차라리 멀어서 잘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고향을 떠나는 작가의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31 ~ 34] <출전> 작자 미상, 『보은기우록』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일은 위연청이 화제를 보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린 것이었다.'라고 하며 위연청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아버지께 말씀을 아뢰고 '유한 형제를 불러 자사를 찾아가 부탁할 일을 일일이 가르치고 편지를 대필한 후 잠깐 다른 고을로' 갔다는 것에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위연청이 상량문을 지어 천금의 사례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일에 대해 '왕소삼이 자세히 듣고 돌아와' 늙은에게 전했다는 것에서, 늙은이 왕소삼을 통해 위연청이 '천금도 거절'한 것을 알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위연청의 말에 늙은이 '감추었다가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에는, 위연청이 천금을 거절한 일을 늙은이 사실과 달리 말하고 있음이 드러날 뿐 위연청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늙은이 '위연청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실망하고 놀'라 '너는 어찌 허황된 말로 나를 속이는가? 내가 그 집에 가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며 왕소삼을 '꾸짖'고 있다는 것에서 왕소삼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위연청이 '천금을 허비하지 말라는 위지덕의 말을 들은 후 ㉠이 있었음을 깨닫고 '큰 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불행히 생각'하는 것에서 ㉠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위연청이 '천금'을 허비하지 말라는 위지덕의 말을 듣고 '선비는 글을 짓더라도 값을 받는 것이 아닌 법'이라고 하며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천금의 사례를 받았다'는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상량문을 지은 일로 '천금'의 사례를 받았다는 ㉠과 관련하여 위연청이 '서모의 소임이 이런 일까지 참견하는 것이 아님을 어찌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에서 늙은의 언행이 본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대화 방식 이해하기

④에는 늙은이 자신이 '편찬'을 받은 상황에 대해 '영감님이 너그러운 탓'이라고 하며 위지덕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또한 ④에는 양주 자사가 '위지덕의 어진 마음과 재주를 본받아 위연청이 낫'다는 깨달음을 근거로 '세상 사람들이 위지덕을 헐뜯는 말은 대풍으로 하늘을 엿보고 조개를 던져 바다를 측량함과 같'다고 하며 위지덕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⑥에는 '과거 더럽게 재물을 모은 것'에 위지덕이 이전에 한 행동이 드러나 있고, '이런 큰 계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위지덕이 한 행동의 이유에 대한 양주 자사의 추측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④에는 상대의 역할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④에는 늙은이 인물의 지위를 제시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⑥에는 양주 자사가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⑥에는 '위지덕의 어진 마음과 재주를 본받아 위연청이 낫음을 깨달았다. 과거 더럽게 재물을 모은 것은 원래 이런 큰 계책이 있기 때문'에 위지덕에 대한 양주 자사의 생각이 드러나 있지만 양주 자사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⑥에는 늙은이 상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나타내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⑥에는 양주 자사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4.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위지덕이 '재물을 아끼지 때' '목숨처럼' 아꼈다는 것에는 과거에 부의 축적을 도모했던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인물이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재화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위지덕이 위연청에게 '천금'을 '헛되이 허비하지 말고 이자를 처서 없애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부를 추구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천금'을 거절한 위연청에게, 위지덕이 '받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는 것을 사양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가치관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위연청이 '화제를 보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리고 '유한 형제를 불러 자사를 찾아가 부탁할 일을 일일이 가르치'며 재산을 '관청의 쓰임에 보태'게 한 것에서 공동체를 위해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위연청이 '편지를 대필한 후, 이를 양주 자사에게 보내고 자신은 '다른 고을로 가' 자신이 한 일을 '아버지께서 한 일'로 보이게 한 것에서 선행의 공을 아버지에게 돌려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④	37	③	38	⑤	39	②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⑤								

35. [출제의도] 형태소의 교체 이해하기

'(얼굴이) 부어[부어]에서' 어간 '붓-'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앞에서 어간 말 'ㅅ'이 탈락하여 '부-'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뱃이[머치]', 비음을 제외한 자음 앞에서는 '뱃도[뱃도]', 비음 앞에서는 '뱃만[뱃만]'으로 실현되어 각각 '뱃', '뱃', '뱃'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형태가 분포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아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숯과[숯과]', '술조차[술조차]'에서 '숯'은 각각 'ㄷ', '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과', '조차'와 결합하였지만 '숯'이라는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날씨가) 굿다[굿따]'에서 어간 '굿-'은 종성에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올 수 있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굿-'이라는 이형태로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글씨를) 적느라[적느라]에서' 어간 '적-'은 비음 앞에 'ㄱ, ㄷ, ㅂ'과 같은 평파열음이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적-'이라는 이형태로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이형태 교체의 양상 이해하기

'감자[감짜]'는 '감조차[감조차] (없다)'와 비교해 보면, 어미 '-자'가 'ㅍ' 뒤에서 교체된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 '감자[감짜]'에서 '-자'가 '-짜'로 교체되는 것은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라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① '고우니[고우니]'는 '(손가락이) 곱으니[고브니]'와 비교해 보면, 어간 '곱-'이 'ㄷ'와 같은 모음 앞에서 교체된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 '고우니[고우니]'에서 '곱-'이 'ㄷ'와 같은 모음 앞에서 '고우-'로 교체되는 것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② '짚는[짐는]'은 [짐는]으로만 발음할 수 있으며, 어간 '짚-'이 '짐-'으로 교체되는 것은 종성에 자음 'ㅇ'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과 비음 앞에 평파열음이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된 것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 '짚는[짐는]'에서 '짚-'이 '짐-'으로 교체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라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③ '들어서[드러서]'는 '(땅이) 굳어서[구더서]'와 비교해 보면, 어간 '들-'이 'ㄷ'와 같은 모음 앞에서 교체된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 '들어서[드러서]'에서 '들-'이 'ㄷ'와 같은 모음 앞에서 '들-'로 교체되는 것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⑤ '물고[물꼬]'는 [물꼬]로만 발음할 수 있으며, 어미 '-고'가 '-꼬'로 교체되는 것은 'ㄷ'과 같은 평파열음 뒤에 예사소리가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형

태소의 형태가 교체된 것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 '물고[물꼬]'에서 '-고'가 '-꼬'로 교체되는 것은 된소리되기라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37.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과 높임 표현 이해하기

안긴문장 '고향에 계신'에서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안긴문장 '친척 어른신께 안부를 여쭙기'에서는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객체인 '친척 어른신'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안긴문장 '오랜만에 빈'에서는 특수 어휘 '빈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객체인 '은사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안긴문장 '머리가 하얗게 세신'에서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나 특수 어휘가 아닌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안긴문장 '삼촌이 편하게 쉬시도록'에서는 주체인 '삼촌'을 높이고는 있으나 특수 어휘가 아닌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담화의 특성 이해하기

㉔은 예은, 세속을 지시하고 ㉕은 예은, 세속, 나라를 지시하고 있어 ㉔이 지시하는 대상은 ㉕이 지시하는 대상에 포함되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㉑에서 '이'는 '도스기'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아즈민'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㉑에서 '브르느다'와 달리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된 '잇느이다'는 상대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㉑에서 '님그름'은 음성 모음이 사용된 체언 '님금'에 목적격 조사 '을', '오술'은 양성 모음이 사용된 체언 '옷'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여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㉑에서 판정 의문문인 '반드기 모메 잇느녀'에는 종결 어미 '-녀'가, 의문사 '어디'를 사용한 설명 의문문인 '究羅帝 이제 어디 잇느뇨'에는 종결 어미 '-뇨'가 사용되어 서로 다른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㉑에서 '뜨-', '뿔'과 같이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쓰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 이해하기

위 강의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로 각기 다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강의 중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강사는 쌍방향 강의 중에 '밀랍 랩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라는 승범의 질문에 '뜨거운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진행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강의 중에 '우리 학교 누리길 ~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강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강사는 화상 강의 중에 '제시된 자료 화면은 ~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며 진행자가 공유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진행자가 화상 강의 중에 '준비가 다 되면 ~ 조금 더 기다릴게요.', '모두 준비가 되셨네요.'라며 화면을 통해 학생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매체 특성 이해하기

㉑에서는 하이퍼링크로 웹사이트 주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밀랍 랩 활용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㉑에서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82명이 좋아합니다'를 통해 게시물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㉑에서는 '제가 써 본 밀랍 랩 사진이 예요.'라며 밀랍 랩의 실제 사용 모습을 사진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㉑에서는 '게시물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㉑에서는 '#밀랍랩' 등과 같이 특정 문구 앞에 '#' 기호를 붙여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게시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㉑에서 '있겠네요'의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므로, 뜨거우면 밀랍이 녹을 수 있음을 추측하는 것이지 밀랍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㉑에서 '동의하신 대로'의 의존 명사 '대로'는 어떤 상태와 같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학생들이 사진에 동의한 바와 같이 강의가 녹화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㉑에서 '녹화됩니다'의 접미사 '-되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므로,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기보다 행위의 대상인 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㉑에서 '알았는데'의 연결 어미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사용하므로, 밀랍 랩을 만든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생각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㉑에서 '만져 보니'의 보조 동사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므로, 밀랍 랩을 만든 것이 시험 삼아 한 행동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분석하기

'학생 1'은 강의 내용 중 '그리고 밀랍은 국가 기관에서 ~ 인체에 대체로 안전하다'는 밀랍의 특성에 대한 강사의 설명과 관련하여 '강사님이 알려 주신 정보에 믿음이 있어'라며 정보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활용 방식 분석하기

㉑에서는 챗봇 상담을 제안하는 '지혁'에게 '챗봇을 이용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며 답장 기능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으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이해하기

'관심 있는 정보만 따로 모아 보여 주면 좋겠'다는 ㉑에 대해 '사용자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함께 제공하자'는 '희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포인트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를 고려해 '포인트 적립 내역'이라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관심사 이외의 정보를 추천해 준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채팅 상담 운영 시간이 짧'다는 ㉑에 대해 '챗봇을 이용하면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시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질문을 해도 답변이 너무 늦'다는 ㉑에 대해 '챗봇을 이용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희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오후 10:10'에 올린 질문에 '오후 10:10'에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앱 화면이 너무 복잡해서 공지 사항을 못 찾겠'다는 ㉑에 대해 '챗봇을 만들 때'에 '즐거 찾는 메뉴는 눈에 잘 띄게 배치하자'는 '지혁'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지 사항'과 같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메뉴가 상담 시작 부분에 뜨는 챗봇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흔히 하는 질문도 매번 채팅 창에 입력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㉑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거나 질

문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메뉴도 같이 띄우자'는 '시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기 검색어', '자주 찾는 질문' 메뉴를 활용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제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 표기의 기준이 되는 한글 맞춤법 규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기본 원칙에 어법을 고려하여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을 덧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표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중세의 표기와 연음이 되는 환경에서의 표기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알아보자.

먼저 중세의 표기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성 표기에 여덟 개의 자음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기법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성은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의 여덟 자로써 넉넉히 쓸 수 있다.’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 중성 표기를 여덟 자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꿀 때 바뀐 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중세 국어의 문헌 가운데 『용비어천가』의 ‘깊고’, ‘꽃처럼’ ㉡ 예외도 나타난다. 근대 국어에서는 중성의 ‘ㄷ’과 ‘ㅅ’이 발음상의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ㄷ’을 ‘ㅅ’으로 적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 결과 중성 표기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자가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연음이 되는 환경에서의 표기를 보자.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의 자음 소리가 뒤의 초성에 옮겨 가서 발음되는 연음이 일어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용비어천가』의 ‘식미기픈 믈른’의 ‘식미’, ‘기픈’, ‘믈른’이 있다. 그런데 중세 국어 문헌 가운데 『월인천강지곡』에는 현대 국어와 같이 끊어 적기를 한 경우가 보인다. ㉢ 체언의 ‘ㄴ, ㄹ, ㅁ, ㅇ, ㅅ’과 같은 불충불탁의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 끊어 적기가 나타났고, 용언 어간이 ‘ㄴ, ㅁ’으로 끝날 경우에도 끊어 적기가 나타났다. 근대 국어에서는 ㉣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말음을 뒤에 이어 오는 조사나 어미의 초성에도 다시 적는 거듭 적기가 나타났다. ‘사름미’, ‘깁픈’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중세 국어의 이어 적기 방식이 현대 국어의 끊어 적기 방식으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표기의 양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말 표기의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그 변화 양상과 법칙을 탐구하는 것은 국어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5.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중성에서는 ‘ㅂ’과 ‘ㅍ’의 발음이 구별되었다.
- ② 중성에서는 ‘ㄷ’과 ‘ㅅ’의 발음의 구별이 어려웠다.
- ③ 중성에 오는 자음은 여덟 개의 자음 중 하나로 소리 났다.
- ④ 중성에서 여덟 자의 자음 표기를 통해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고자 했다.
- ⑤ 여덟 자 이외의 자음은 중성에서 환경에 따라 바뀐 모습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36. ㉠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	㉢
①	맞고(맞으)	안아(안아)	님물(님을)
②	찢(찢)	답아(답아)	동녁리(동녁의)
③	받(받)	꿈안해(꿈 안에)	먹글(먹을)
④	뫋(뫋)	ㅁ숨애(마음에)	사라(살아)
⑤	뵈(뵈)	손으로(손으로)	님금미(임금이)

37. 다음은 수업 상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표준 발음법을 살펴보고 [자료]처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해 볼까요?

표준 발음법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x), ㅁ(ㅁx)’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5항 어간 받침 ‘ㄹ, ㄹx’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자료]

할게[할게]	훤고[훤꼬]	신다[신:따]
다듬지[다듬찌]	만날 사람[만날:짜람]	

학생 : _____ ㉠ _____

선생님 : 네, 잘했어요.

- ① ‘할게’는 관형사형 ‘-ㄹ’ 뒤에 ‘ㄱ’이 오기 때문에 제27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해요.
- ② ‘훤고’는 어간 받침 ‘ㄹx’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ㄱ’이 오기 때문에 제25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해요.
- ③ ‘신다’는 어간 받침 ‘ㄴ’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ㄷ’이 오기 때문에 제24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해요.
- ④ ‘다듬지’는 어간 받침 ‘ㅁ’ 뒤에 어미의 첫소리 ‘ㅈ’이 오기 때문에 제24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해요.
- ⑤ ‘만날 사람’은 관형사형 ‘-ㄹ’ 뒤에 ‘ㅅ’이 오기 때문에 제27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해요.

38.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과거 시제가 나타날 것.
 ㉡ 객체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
 ㉢ 명사절이 문장 안에 안겨 있을 것.

조건	예문
㉠, ㉡	㉠
㉠, ㉢	㉡
㉡, ㉢	㉢

- ① ㉠: 날씨가 좋으면 형이 할머니를 모시고 나올 것이다.
- ② ㉠: 아버지께서 옷을 들고 저를 마중하러 나오셨습니다.
- ③ ㉡: 그가 아침에 수영장에 갔음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 ④ ㉡: 동생은 우산이 없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 ⑤ ㉢: 저는 어머니께 식사를 차려 드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3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승준, 아영, 민찬이 도서관 앞에서 만난 상황]

승준: 다들 ㉠이미 와 있었네. 책 찾으러 들어갈까?
아영: 서우가 아직 안 왔는데, 연락해 볼까?
민찬: 어제 ㉡우리 회의할 때, 서우가 오늘 모임에 30분 정도 늦을 거 같다고 ㉢우리한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잖아.
승준: 맞아, 회의하다가 ㉣자기 좀 늦는다고 말했잖아. 곧 올 거야.
아영: 아, 깜빡했네. 그럼 내가 서우를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게. 휴대폰으로 ㉤미리 자료 좀 찾고 있어야겠다.
민찬: 그래. 그럼 ㉥우리 ㉦먼저 들어가서 책 보고 있을게.

- ①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 ② ㉠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이 가리키는 시간대보다 나중이다.
- ③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을 포함한다.
-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⑤ ㉡과 달리 ㉢은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40~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고, (나)는 (가)를 시청한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매주 목요일, 미디어가 변화시키는 문화를 훑어보는 '미디어와 문화'를 시작합니다. 실시간 댓글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진행자: 지난 시간에는 '뉴 미디어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전문가: 오늘은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모금함이나 ARS를 통한 전통적 방식의 기부가 줄어들고, 누리 소통망이나 스마트폰 앱과 같은 뉴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기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행자: 아, 그렇군요. ㉠누리 소통망을 통한 기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가: 네. '참여형 챌린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참여자가 누리 소통망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을 올려 사회 문제를 알리거나,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게시물의 수만큼 금액이 적립되어 기부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작년에 유행했던 '런 챌린지'의 실제 게시물 사진입니다. '런 챌린지'는 참여자가 운동 사진을 누리 소통망에 게시하면 게시물의 수만큼 희소병 협회에 기부금이 전달되는 챌린지예요. ㉢많은 유명인이 참여해 화제가 되었고 목표 모금액을 네 배나 초과 달성했죠.

진행자: 운동을 하고 게시물을 올리면 기부가 된다니 쉽고 즐겁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겠군요.

전문가: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리 소통망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유대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챌린지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참여형 챌린지는 기부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재미만을 추구하거나 보여 주기 식으로만 소비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진행자: 챌린지 참여자의 참여 태도가 중요하겠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는 어떤 방식입니까?

전문가: 스마트폰 앱에서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만큼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실시간 댓글로 풀벌레 님께서 '가치견자' 앱은 걸음 수만큼 기부 포인트를 주는데, 걷기만 해도 기부할 수 있어 뿌듯하고 도전 과제를 수행하는 것 같아 재미있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가치견자'는 대표적인 기부 앱이죠. ㉤말씀하신 대로 앱을 통한 기부 역시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앱을 통한 포인트 기부 외에도 비영리 단체가 개발한 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기부자가 기부 금액을 정할 수 있어 기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진행자: 실제로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가 늘어나고 있나요?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모금함을 통한 기부는 2018년 32%에서 2022년 15.4%로, ARS를 통한 기부는 2018년 22.3%에서 2022년 6.3%로 감소한 반면,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는 2018년 21.1%에서 2022년 35.7%로 증가했어요.

진행자: 뉴 미디어가 기부 문화를 바꾸고 있군요.

전문가: 맞습니다.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는 작은 행동이지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손길을 더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진행자: 방송 시청 후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에 관심이 생긴 분들을 위해 '더 보기'에 다양한 기부 활동의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댓글 창이 열려 있으니 방송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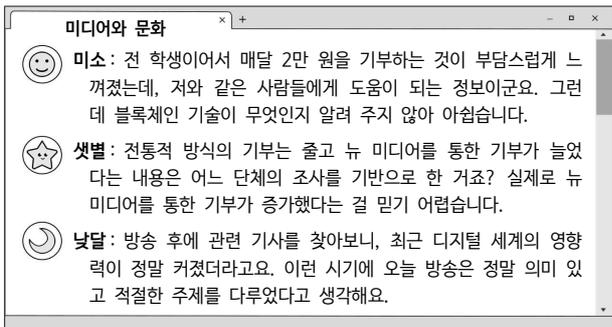
(나)

언어와 매체 시간에 미디어를 통한 긍정적 활동을 찾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방송을 참고해 슬라이드를 제작해야겠어. 기부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 슬라이드는 기부 방식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기부 방식의 장점을 제시해야지.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 방식에 대한 ㉡ 슬라이드는 각 기부 방식의 예시를 안내하고 기부 참여 시의 유의점을 설명하되,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어야지.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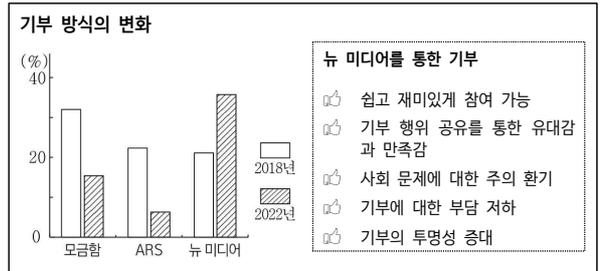
- ① 방송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화면을 제공한다.
- ② 본방송을 중간부터 시청한 수용자를 위해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 ③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의 예시를 제시한다.
- ④ 방송 내용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난주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방송 내용을 설명한다.
- ⑤ 방송 내용이 수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 댓글 창의 일부이다. 참여자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소'는 정보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미소'는 방송 내용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③ '셋별'은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의 출처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낫달'은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⑤ '낫달'은 추가로 수행한 탐색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슬라이드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손길 - 뉴 미디어를 통한 쉽고 즐거운 기부

누리 소통망을 통한 기부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게시물을 수만큼 기부금 적립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

- [가지김재] 걸음 수만큼 기부 포인트를 증정하는 앱
- [푸른별지킴이]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앱
- [어린이공길] 소액 기부도 가능한 비영리 단체 공식 앱

△ 단, 단순히 재미 추구나 과시를 위해서만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① 기부 방식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로 한 ㉠은 기부 방식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여 주자.
- ② 새로운 기부 방식의 장점을 제시하기로 한 ㉠은 전통적 방식의 기부와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의 차이를 비교해 제시하자.
- ③ 각 기부 방식의 예시를 안내하기로 한 ㉡은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예시를 추가하자.
- ④ 기부 참여 시의 유의점을 설명하기로 한 ㉡은 전문가가 언급한 참여형 챌린지에 대한 비판 내용을 바탕으로 유의점을 제시하자.
- ⑤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은 전문가가 언급한 말을 활용하여 만든 제목을 달자.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종결 어미 '-습니까'를 사용하여,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 중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 ② ㉠: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기부금 적립의 조건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③ ㉡: 보조사 '나'를 사용하여, '런 챌린지'가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한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 관형사 '어떤'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⑤ ㉢: 부사 '역시'를 사용하여, 앱을 통한 기부의 장점이 누리 소통망을 통한 기부의 장점과 같음을 나타내고 있다.

[44~45] (가)는 누리 소통망에 올리기 위해 '현규'가 제작한 게시물 초안이고, (나)는 (가)에 대해 학생들이 진행한 온라인 화상 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p>게시물 페이지 1</p> <p>사진 동아리와 여행 동아리가 함께하는</p> <p>사진과 함께하는 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XX. 07. XX. • 장소: ○○고등학교 주변 명소 • 대상: ○○고등학교 학생 	<p>게시물 페이지 2</p> <p>일일 사진 강의와 함께 떠나는 여행!</p>  <p>여행에 사진작가의 사진 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p>
<p>게시물 페이지 3</p> <p>어디로 여행을 떠날까?</p>  <p>학교 주변의 명소로 여행을 떠나요!</p>	<p>게시물 페이지 4</p> <p>여행의 추억을 오래도록</p>  <p>전교생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공유 앨범으로 추억을 나누어요!</p>



현규: 이제 회의를 시작할게. 다들 내 목소리 잘 들려?
한나: 현규야, 소리가 잘 안 들려. 오디오 설정 좀 확인해 줘.
현규: 어, 그래? 내 마이크 음량을 키워 볼게. 지금은 어때?
한나: 이제 잘 들려. 그런데 민이는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한대. 내가 회의를 녹화해서 보내 주려고 하는데, 동의하니?
현규, 태영, 은지, 성범, 가희: 응, 그래.
한나: 고마워. 그럼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할게.
현규: 지난 회의 때 사진 동아리와 여행 동아리의 연합 활동으로 '사진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했잖아. 지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누리 소통망에 홍보할 게시물 초안을 제작해 봤어. 오늘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보자.
태영: 첫 페이지에도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 잠시 내 화면을 공유해 볼게. 내 누리 소통망 화면인데 여기 보이는 많은 게시물 중에 글자만으로 이루어진 게시물보다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된 게시물이 더 눈에 띄지?
성범: 응,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니까 시선이 먼저 가게 되네.
은지: 방금 간단히 그려 봤는데 이런 그림을 넣으면 어때? (파일을 전송한다.) 카메라를 든 여행객을 통해 우리 여행의 주제를 한눈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현규: 오, 좋은데? 이런 그림이 포함되면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우리 여행의 주제도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겠어. 이 그림 조금 더 보완해서 보내 줄 수 있어?

은지: 응! 회의 끝나면 다시 그려서 이메일로 보낼게.
성범: 게시물 페이지의 순서를 바꾸자. 내가 여행 지원자라면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 사진 강의보다 여행 코스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면 어때?
가희: 나도 동의해. 누리 소통망 이용자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게시물은 끝까지 보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먼저 제시하는 게 좋겠어.
은지: 여행 코스를 안내할 때 여행지 사진도 제시할까? 사진을 보여 주면 여행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소개할 수 있잖아.
성범: 그게 좋겠다. 사진 답사 때 사진 동아리가 촬영한 여행지 사진들을 정리해 볼게.
가희: 사진 강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어떨까? 여행을 함께할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누리집 주소를 채팅 창에 올릴게. 클릭해서 스마트폰 사진 강의 소개 글을 참고해 봐.
태영: 가희가 보내 준 누리집 주소를 클릭해 봤는데, 사진 강의를 소개하는 내용이 상세해서 참고할 게 많네.
한나: 초안에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을 인화해 준다는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 스마트폰 공유 앨범은 전교생 모두 접속할 수 있지만, 인화된 사진은 참가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니 꼭 안내하면 좋겠어.
현규: 그러자. 그럼 내가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홍보 게시물을 수정할게. 다시 검토해 줘.

4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규'는 오디오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음성이 잘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 ② '한나'는 회의 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 회의 내용을 공유하려 하고 있다.
 - ③ '태영'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은지'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이전 회의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희'는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하이퍼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45. (나)를 바탕으로 (가)를 수정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이 게시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게시물 페이지 1'에 여행지 사진을 추가한다.
 - ② 사진 강의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게시물 페이지 2'에 제시된 그림을 삭제한다.
 - ③ 여행지를 안내하기 위해 '게시물 페이지 3'에 여행지를 설명하는 글을 추가한다.
 - ④ 참가 시 주어지는 혜택을 강조하기 위해 '게시물 페이지 4'에 참가자에게 사진을 인화하여 제공한다는 정보를 추가한다.
 - 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가 먼저 제시될 수 있도록 '게시물 페이지 3'과 '게시물 페이지 4'의 순서를 맞바꾼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③	36	⑤	37	①	38	③	39	③
40	②	41	⑤	42	②	43	①	44	④
45	④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중성 표기 특징 파악하기

㉠에서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꿀 때 바뀐 대로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으로, 중성 표기를 여덟 자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중성에서 'ㄱ, ㅅ, ㄷ, ㄴ, ㅂ, ㅁ, ㅌ, ㄹ'의 여덟 자만 소리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중성에 오는 자음은 여덟 개의 자음 중 하나로 소리 났음을 알 수 있다.

① 중성에서 'ㄹ'을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ㄹ'은 중성에서 소리 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중세 국어에서는 중성에서 'ㅂ'과 'ㄹ'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았다. ② 중성에서 'ㄷ'과 'ㅌ'이 각각 표기된 것으로 보아 발음상의 구별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어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중성에 여덟 자의 자음을 표기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여덟 자 이외의 자음을 중성에 표기할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므로 여덟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표기해야 한다. 이는 환경에 따라 바뀐 모습을 바뀐 대로 적어 표기에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표기법 이해하기

'ㄴ'의 중성 'ㄹ'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밝힌 여덟 개의 자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경에 따라 바뀐 모습을 바뀐 대로 적지 않은 ㉠에 해당한다. '손'으로'는 불경불탁의 자음인 'ㄴ'으로 끝난 체언 '손'에 조사 '으'가 와서 끊어 적기가 나타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님금미'는 'ㄹ'으로 끝난 체언 '님금'의 말음 'ㄹ'을 뒤에 이어 오는 조사 '이'의 초성에도 다시 적는 거듭 적기가 나타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① '맛'고는 여덟 개의 자음 중 하나인 'ㅌ'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아'는 용언 어간인 'ㄴ'으로 끝난 경우 끊어 적기가 된 예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답아'는 용언 어간인 'ㄷ'으로 끝난 경우 끊어 적기가 된 예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밭'은 여덟 개의 자음 중 하나인 'ㄷ'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뽕안해'는 ㅎ중성 체언 '안ㅎ'의 중성 'ㅎ'이 조사 '에'에 이어 적기가 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라'는 용언 어간 '살'의 받침인 'ㄹ'을 뒤에 이어 오는 어미 '아'의 초성에 적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나타난 것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에 맞는 발음 파악하기

'할계'의 경우 어간 '하'에 'ㄹ'로 시작되는 어미 'ㄹ계'가 붙어 [할계]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27항의 [붙임]에 해당한다.

38. [출제의도] 문법 요소와 문장의 짜임 파악하기

㉠은 '값음'의 '-았-'과 '들었다'의 '-었-'을 통해 과거 시제가 나타나므로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아침에 수영장에 갔음'이라는 명사절이 문장 안에 안겨 있으므로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할머니를 모시고'에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인 '모시고'가 사용되어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와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② '나오셨습니까'의 '-었-'을 통해 과거 시제가 나타나므로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와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④ '비가 그치기'라는 명사절이 문장 안에 안겨 있으므로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와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⑤ '값습니까'의 '-았-'을 통해 과거 시제가 나타나므로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께 식사를 차려 드리고'에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인 '께'와 '드리고'가 사용되어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⑥은 실현되지 않았다.

39. [출제의도] 담화의 언어적 맥락 파악하기

㉠이 가리키는 대상은 승준, 아영, 민찬, 서우로 ㉠이 가리키는 대상인 서우를 포함한다.

①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를 가리킨다. ② ㉠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이 가리키는 시간대보다 앞선다. ④ ㉠이 가리키는 대상은 승준, 아영, 민찬, 서우이고, ㉠이 가리키는 대상은 민찬, 승준이다. ⑤ ㉠이 가리키는 대상은 승준, 아영, 민찬으로 <보기>의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지만, ㉠이 가리키는 대상은 민찬, 승준으로 <보기>의 담화 참여자 중 아영이 빠져 있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 파악하기

(가)에서는 본방송을 중단부터 시청한 수용자를 위해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① '전문가'의 세 번째 발화 중 '지금 ~ 사진입니다.'에서 방송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화면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진행자'의 여섯 번째 발화 '실시간 댓글로 ~ 하셨습니다.'에서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네 번째 발화 중 '지난 시간에 ~ 마찬가지로입니다.'에서 방송 내용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난주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방송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의 아홉 번째 발화 중 '방송 시청 후 ~ 남겨 두겠습니다.'에서 방송 내용이 수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태도 파악하기

'냇달'의 '방송 후에 ~ 켜졌더라고요.'에서 방송 후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추가 탐색 활동을 진행해 정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기에 ~ 생각해요.'에서 방송 내용이 '그 당시의 사정이나 사회의 요구에 알맞은 성질'을 뜻하는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미소'의 '전 학생이어서 ~ 정보이군요.'에서 방송 내용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주목하며 방송 내용이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③ '셋별'의 '전통적 방식의 ~ 기반으로 한 거죠?'라는 것에서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의 출처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 믿기 어렵습니다.'라는 것에서 방송 내용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 제작의 적절성 파악하기

㉠에서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 장점을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제시하고 있으나, 전통적 방식의 기부와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의 차이를 비교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① ㉠에서는, (가)에서 전문가가 모금함을 통한 기부와 ARS를 통한 기부는 좋고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는 늘었다고 기부 방식의 변화를 언급한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해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에서는, (가)의 '참여형 켈린지는 ~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라는 전문가가 언급한 참여형 켈린지에 대한 비판 내용을 바탕으로 '단, 단순히 ~ 주의하기.'라는 기부 참여 시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에서는, (가)의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손길'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활용하여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달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이해하기

㉠에 사용된 '-습니까'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진행자는 종결 어미 '-습니까'를 사용하여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 중 누리 소통망을 통한 기부부터 설명해 줄 것을 물음의 방식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

② ㉠에 사용된 '-면'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이다. 전문가는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기부금 적립의 조건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③ ㉠에 사용된 '나'는 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전문가는 보조사 '나'를 사용하여 '런 켈린지'가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한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에 사용된 '어떤'은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관형사이다. 진행자는 관형사 '어떤'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⑤ ㉠에 사용된 '역시'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과 같음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전문가는 부사 '역시'를 사용하여, 앱을 통한 기부의 장점이 누리 소통망을 통한 기부의 장점과 같음을 나타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나)에서 은지는 '첫 페이지에도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태영의 제안에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그린 그림을 공유했을 뿐, 다른 참가자에게 이전 회의의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

③ 태영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누리 소통망 화면'을 사재로 보여 주며 '첫 페이지에도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가희는 채팅 창에 '사진 강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자는 자신의 제안과 관련된 정보인 누리집 주소를 하이퍼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나)에서 한나가 '인화된 사진은 참가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니까 꼭 안내해'라고 한 것을 바탕으로 (가)의 '게시물 페이지 4'에 참가자에게 사진을 인화하여 제공한다는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① 은지가 그린 '카메라를 든 여행객' 그림을 (가)의 '게시물 페이지 1'에 추가하기로 하였으므로, '게시물 페이지 1'에 여행지 사진을 추가한다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 '게시물 페이지 2'의 그림을 삭제하자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은지가 '여행 코스를 안내할 때 여행지 사진도 제시'하자고 제안하였으므로 (가)의 '게시물 페이지 3'에 여행지를 설명하는 글을 추가한다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⑤ 성범이 '사진 강의보다 여행 코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자고 제안하였으므로 (가)의 '게시물 페이지 2'와 '게시물 페이지 3'의 순서를 맞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3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용언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으며 어미에는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가 있다. 용언이 복합어인 경우에 합성어 용언의 어간은 ‘어근+어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생어 용언의 어간은 ‘접두사+어근’ 혹은 ‘어근+접미사’로 구성되어 있다.

- 뛰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 놓친다.
- 치료 시기를 ㉡ 넘기면 건강을 ㉢ 되찾기 어렵다.
- 책임자는 건물의 완공일을 일주일 정도 ㉣ 앞당겼다.
- 그는 흙과 모래를 ㉤ 뒤섞는 일을 혼자 ㉥ 끝마치곤 했다.

- ① ㉠과 ㉤은 동일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 ② ㉡과 ㉢은 어간에 동일한 접사가 쓰였다.
- ③ ㉢과 ㉤의 어간은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되었다.
- ④ ㉢은 두 개의 선어말 어미와 한 개의 어말 어미가 쓰였다.
- ⑤ ㉤의 어간은 어근과 접미사로 구성되었다.

3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중세 국어의 체언 중에는 뒤에 오는 조사에 따라 형태가 달리 실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대 국어에서 ‘나무’, ‘하루’를 의미하는 중세 국어의 단어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조사 ‘와’와 결합할 때 ‘나모’, ‘하르’의 형태로 나타났고,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납’, ‘홀리’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예문]에서 이 단어들은 조사 ‘마다’, ‘와’, ‘도’, ‘은’과 결합하고 있는데, 그럼 이 단어들은 ㉠~㉤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문]

- ㄱ. 나비 (㉠) 들엿다 흐느다
[원숭이가 나무마다 매달렸다 한다]
- ㄴ. (㉡) 홀ㄴ로 흐며
[나무와 흙으로 하며]
- ㄷ. (㉢) 뵈 업시 묻흐시더니라
[하루도 벗 없이 하지 못하셨다]
- ㄹ. (㉣) 조심 아니흐샤
[하루는 조심하지 아니하셔]

- | | | | | |
|---|------|-----|-----|----|
| | ㉠ | ㉡ | ㉢ | ㉣ |
| ① | 나모마다 | 나모와 | 하르도 | 흐른 |
| ② | 나모마다 | 납과 | 홀르도 | 흐른 |
| ③ | 나모마다 | 나모와 | 하르도 | 홀른 |
| ④ | 납마다 | 납과 | 하르도 | 홀른 |
| ⑤ | 납마다 | 나모와 | 홀르도 | 흐른 |

[40~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제작한 행사 홍보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도청에서 운영하는 ‘우리 고장 홍보 채널’의 진행자 방랑객입니다. 이 방송은 실시간 방송이니 시청하다가 질문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실시간 대화창에 글을 올려 주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지역 명소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유명 여행가이자 작가 이신 ○○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가: 안녕하세요. ○○입니다. 실시간 방송이라 떨리네요.

진행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 시청자 여러분의 섭외 요청이 쇠도했던 만큼 다들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몇 주 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강 주변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여행가: 바로 ◇◇강 주상절리 길입니다. 제가 방금 화면에 띄운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뭐로 보이나요?

진행자: 절벽에 붙어 있는 산책길이네요.

여행가: 그렇죠. 바로 ◇◇강 주상절리 길입니다. 총 길이 3.6km, 폭 1.5m의 잔도로, 협곡 사이를 걸으며 주상절리가 만든 멋진 풍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명소 부럽지 않은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진행자: 지금 실시간 대화창에 질문이 많이 올라 오네요.

코코넛: ‘잔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요?

달빛: 주상절리는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행자: ‘코코넛’ 님이 ‘잔도’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행가: 잔도는 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낸 길로, 절벽에 붙여 선반처럼 설치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강이 보이죠.

사자후: 헉! 아래로 강이 보여요? 너무 무섭겠다!!!

진행자: ‘사자후’ 님이 무섭겠다고 하시네요.

여행가: ㉡ 거기보다 더 무서운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닥이 유리인 전망대인데요, 전망대가 잔도 중간에 반원 형태로 돌출되어 있는 구조라서 허공 위를 걷는 느낌이지요. 그런데 무서움보다는 긴장 속에서 느껴지는 짜릿함이 훨씬 커요.

진행자: ‘사자후’ 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참! ○○ 님, 주상절리가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달빛’ 님의 질문도 있었잖아요.

여행가: ㉢ 아, ◇◇강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강입니다. 주상절리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개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요, 거기서 볼 수 있는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각각의 다리에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화강암교’에서는 지하 깊은 곳의

용암이 서서히 굳어서 생긴 암석을 볼 수 있고, ‘현무암교’에서는 지표로 분출된 용암이 식어서 생긴 암석을 볼 수 있죠. 다리를 건널 때 화산 폭발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묘미입니다.

진행자: 다리 이름을 통해 주변의 지질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전에 가 봤는데, 거기에서 폭포도 보이더라고요. 폭포가 참 멋있던데, 사진 찍기에도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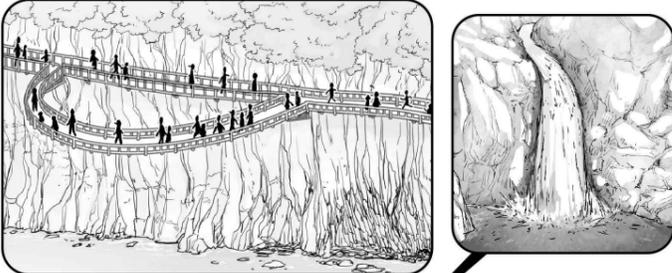
여행가: 맞아요, 멋있죠! ⊕그 폭포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어서 누리 소통망에 한번 올려 보세요.

진행자: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우리 △△도청에서는 여행가 ○○님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소개한 명소를 함께 걷는 거죠. ⊙저희 채널 게시판에 행사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를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도청

**유명 여행가 ○○과 함께하는 두박두박
해외 명소 부럽지 않은 비경
◇◇강 주상절리 길 도보 여행**
2024. 10. XX. (토)



09:00 A 매표소 출발	09:30 유리 전망대 체험	10:30 폭포 앞 기념 촬영	11:00 B 매표소 도착
----------------------	-----------------------	------------------------	----------------------

참가자 혜택

- ○○의 친필 서명 도서 증정
- ○○과의 완주 기념 사진 촬영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문의: △△도청 관광홍보팀 (☎ xxx-xxx-xxxx)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시청자가 방송 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였다.
- ② ‘진행자’는 시청자와 의사소통을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 시청자에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 ③ ‘진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여행가’가 소개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였다.
- ④ ‘여행가’는 소개하는 대상의 규모를 시청자가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 ⑤ ‘여행가’는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41. 다음은 (가)가 종료된 후에 달린 댓글이다. 시청자들의 매체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굴향: 제가 좋아하는 『나의 유럽 여행』의 저자가 직접 소개한 여행지라니!! 작가님의 추천을 믿고 꼭 가 볼게요.

몽계구름: 주상절리 길이 비유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강 지역이 화산 지형이라 주상절리를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옹: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방문 후기를 봤는데요, 일부 다리에만 지질학적 특성을 드러낸 이름을 붙였다네요. 방송에서 들을 땐 모든 다리 이름이 그런 줄 알았네요.

산토끼: 작년엔 갔던 곳이 나오니 반갑네요. 여기 가시면 입장료의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더라고요. 인근 식당에서 그 상품권 잘 사용했어요. △△도청 누리집에 가 보니,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참고하세요!

하회탈: 거기 갔을 때 화장실이 많지 않아 고생했어요. 화장실 위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 ① ‘굴향’은 정보 전달자가 소개한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며 방송에서 다른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② ‘몽계구름’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방송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③ ‘야옹’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산토끼’는 개인적인 경험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하회탈’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근거로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 중 특정한 정보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42. (가)를 바탕으로 (나)를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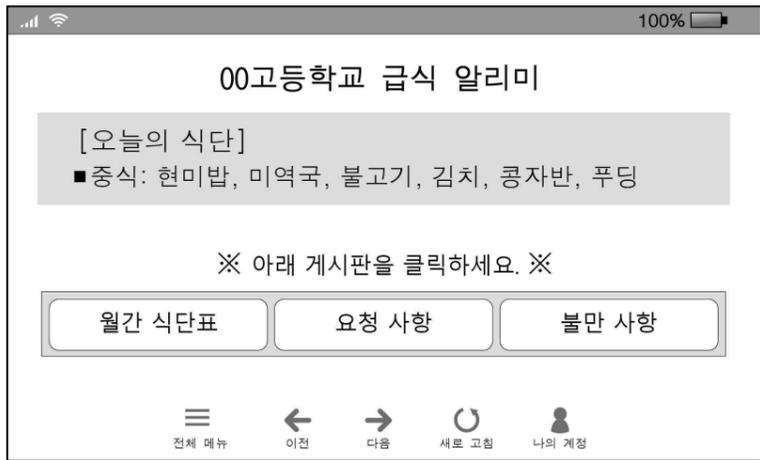
- ① 방송에서 언급한 구절을 활용하여 포스터 제목을 정해야지.
- ②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 중 지질학적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다리의 시각적 이미지를 나란히 제시해야지.
- ③ 방송에서 도전해 보기를 권장한 장소를 포함하여 행사 일정을 제시해야지.
- ④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행사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지.
- ⑤ 방송에서 안내한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시해야지.

4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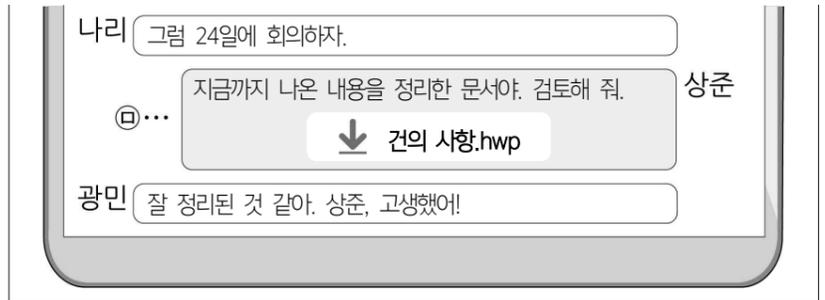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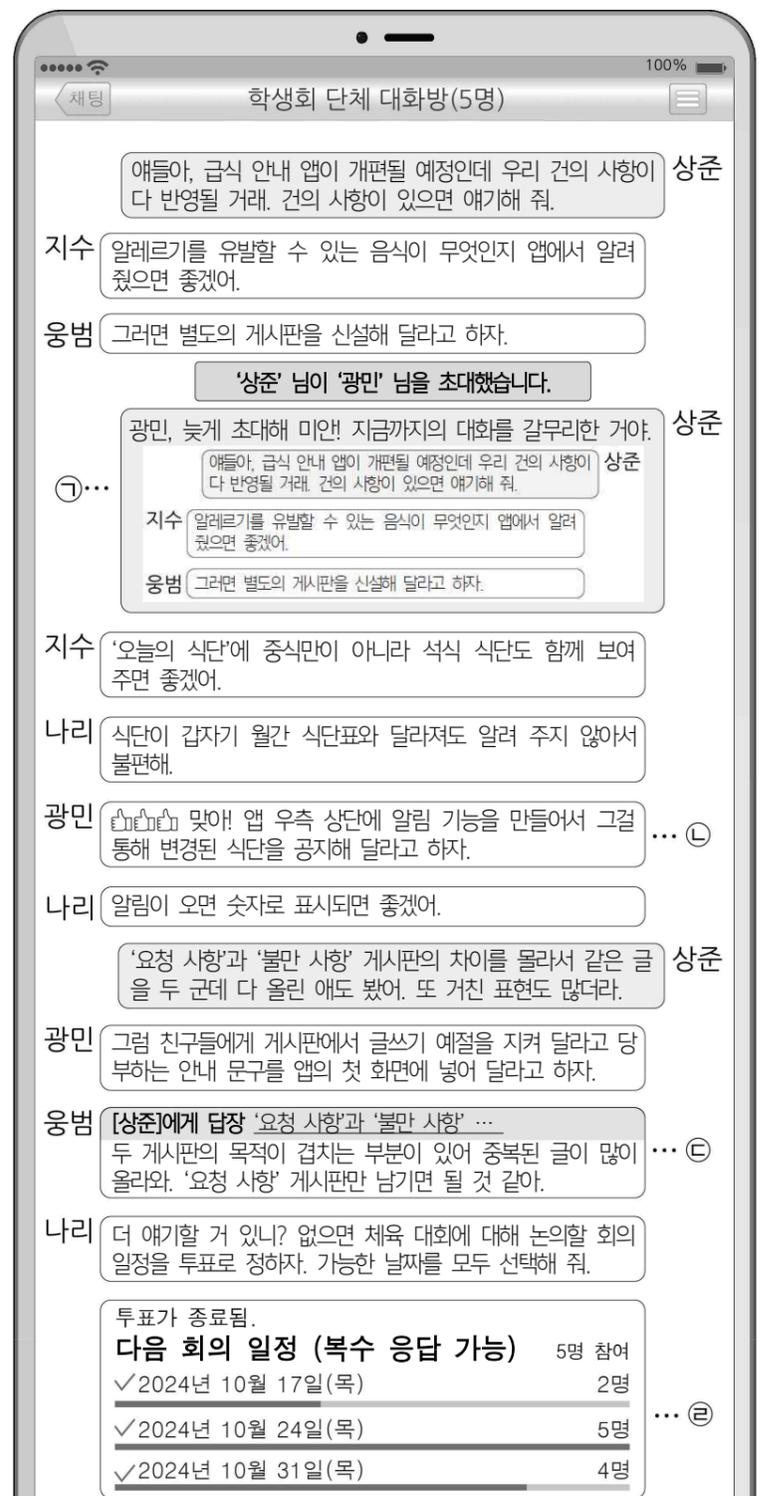
- ① ㉠: 조사 ‘의’를 사용해, 여행가를 섭외하도록 요청한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조사 ‘보다’를 사용해, 잔도가 다른 대상에 비해 가지는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조사 ‘로’를 사용해, 강이 만들어 낸 지형이 변화한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조사 ‘에서’를 사용해, 초보자가 도보 여행을 시작하기 적당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다.
- ⑤ ㉤: 조사 ‘에’를 사용해, 걷기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44~45] (가)는 '학교 급식 안내 앱'을 실행할 때의 첫 화면이고, (나)는 학생회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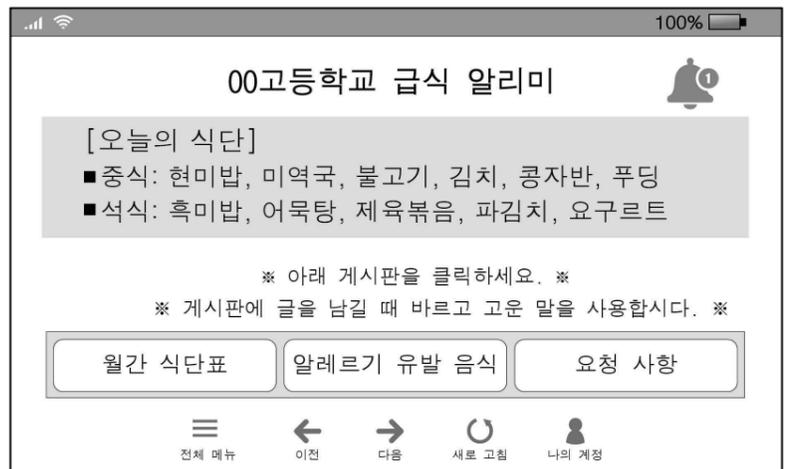


44. ㉠~㉣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면을 갈무리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에 새로 참여한 구성원에게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답장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④ ㉣: 투표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단체 대화방에 속한 구성원들의 응답을 모아서 보여 주고 있다.
- ⑤ ㉣: 문서를 전달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고 했을 때, 수정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알레르기 유발 음식과 관련된 '지수'와 '웅범'의 대화를 반영하여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 ② '오늘의 식단'과 관련된 '지수'와 '나라'의 대화를 반영하여 석식 식단을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③ 변경된 식단을 공지하는 것과 관련된 '나라'와 '광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알림 기능을 생성하였다.
- ④ 중복된 글이 올라오는 두 게시판에 대한 '상준'과 '웅범'의 대화를 반영하여 '불만 사항' 게시판을 삭제하였다.
- ⑤ 게시판의 글쓰기 예절과 관련된 '상준'과 '광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안내 문구를 삽입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빼앗기고 셋방을 전전하다 지쳐 판잣집을 사게 되는데, 이러한 가족의 상황은 집을 빼앗긴 것에 기인하므로 회상 장면의 삽입은 가족이 처한 상황의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 구체적인 공간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④ 인물 간의 대화가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28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이해한다.

㉠은 심 씨에게 속아 집을 빼앗기고 이삿짐을 꾸리느라 큰 혼란에 빠진, 아버지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짓는 표정이다. ㉡은 아버지가 눈앞의 문제 상황을 외면하고 꿈무늬를 빼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형이 짓는 표정이다.

[오답풀이] ① 가족들은 집을 빼앗기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은 가족들로 하여금 가족들이 처한 문제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지 못한다. ② 아버지가 시장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핑계를 대며 문제를 회피한 후, 형의 표정을 보고, 그것에 의해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는다. ③ ㉡은 짐이 철거되는 것을 막으려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 실패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안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아버지는 형에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지만 어머니는 형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다.

29 [출제의도] 인물 간의 갈등을 파악한다.

작업 지휘자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가'라고 말한 것은 논쟁을 통해 형과 작업 지휘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형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형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작업 지휘자의 길을 막고, 이후 작업 지휘자는 어쩔 수 없이 형과 논쟁을 벌이게 된다. ③ 형과 작업 지휘자는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쟁을 끝마친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우리들은 판잣집에서 살게 된 후 전보다 만족감을 느끼며 더부살이 신세를 동정한다. 이는 셋방이라는 대상에 대한 유대감이 아니라 셋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이다.

[오답풀이] ① 심 씨가 고향 친구인 아버지를 속여 집을 빼앗은 것은 집을 경제적 이익이라는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한 물질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② 빨래를 마음껏 널고, 물을 얼마든지 길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생활의 기본 조건으로 가족은 집을 산 이후 그것을 충족하게 된다. ⑤ 어머니는 짐이 철거되는 것을 보며 이상한 몸짓을 보인다. 이는 어머니가 집과의 유대감으로 인해 집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 34] (고전 소설) 작자 미상, 「홍백화전」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계동영의 아들 계일소와 순경화의 딸 순직소를 주인공으로 하여 결혼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미래의 배우자로 여기던 두 인물은 집안의 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해 혼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여 승상의 아들 여방언이 순직소의 미모에 대해 듣고 순경화에게 혼담을 전한다. 처음엔 계씨 집안과의 오랜 약속과 순직소의 마음 등을 이유로 여씨 집안과의 혼인을 사양하던 순경화는 여 승상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 여씨 집안과의 혼인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 승상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 순직소는 자신이 아니라면 계일지가 좋은 배우자와 혼인하지 못하여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중 재색을 겸비한 의양 군주의 딸 설유란을 알게 되고 계일지와 혼인시키고자, 사윗감을 구하는 의양 군주에게 계일지인 척 글을 지어 보내고

계일지로 위장하여 만나 빼어난 용모로 사윗감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계일지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고 아버지인 계동영 역시 오랑캐를 물리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자신의 정체를 의양 군주와 설유란에게 편지로 밝히고 순직소는 떠나고, 의양 군주와 설유란은 순직소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는다. 순직소에 감동한 설유란은 묘책을 떠올려 여 승상의 아들을 황제의 딸과 혼인하게 만들고, 혼인에서 자유로워진 순직소와 계일지, 설유란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31. [출제의도] 서사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주 씨는 순직소가 부친의 말을 따를 것을 바라고 있으며 부친의 명을 따르지 않고 계일지와 함께 야반도주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최앵앵과 왕교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순직소는 부친의 편지를 읽고 부친이 백의중군으로 변방에 간 사연과 여 승상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면한 사연을 알고 매우 슬퍼하고 있다. ③ 주 씨는 계일지와 순직소의 나이,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순직소에게 부친의 명을 따라 여승상과 혼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남장은 순직소가 계일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소로 의양 군주와 설유란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다. 순직소가 남장을 하게 된 이유는 의양 군주가 계일지를 보기를 위하여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거부만 하다가는 혼사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순직소는 계일지인 척 의양 군주에게 글을 보냈고, 설유란과의 혼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유란의 정혼을 확인하기 위해 남장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② 계일지인 척하고 글을 보냈던 순직소는 의양 군주의 요구에 병을 핑계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계일지가 병이 난 것은 아니다. ③ 의양 군주는 남자인 계일지를 만날 것을 생각하고 주렴으로 중당을 가린 채 준비한 것이 남장을 의심하여 순직소와의 만남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주 씨는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 승상의 아들과 결혼하라는 부친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위대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혼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순직소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인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있다.

[오답풀이]

③ 순직소는 계일지가 다른 여자와 혼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불행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④ 계일지를 빼어난 배우자와 맺어 주는 것이 계일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34. [출제의도] 갈등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여 승상의 아들과 혼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식 된 도리에 따르는 것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순직소의 마음이 드러난다. 나를 대신하여 계일지에게 다른 배우자감을 추천하는 것은 그와 혼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상대에 대한 애정이나 의리가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오답풀이] ③ 마땅한 명분이 없기에 이 자리에서 죽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서 타당한 명분이 있기 전에는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계일지와 맹세한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일지에 대한 애정과 의리가 순직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35. [출제의도] 음운 체계 및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거센소리되기의 경우, 순행적 거센소리되기와 역행적 거센소리되기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오답풀이] ② 자음군 단순화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일어난다. ④ ‘니’, ‘기’가 있는 단어는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표준 발음을 이해한다.

‘을는[음는]’은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표준 발음법 제18항에서 받침 ‘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8항이 적용되는 예로 ‘을는[음는]’을 제시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창밖[창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난다. ② ‘읽고[일꼬]’를 발음할 때, 거센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끓고[끈꼬]’는 순행적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표준 발음법 제12항의 [붙임 1]은 역행적 거센소리되기와 관련된다.

37.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을 파악한다.

ㄹ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ㄱ의 안긴문장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ㄹ과 ㄱ의 안긴문장에 필수적 부사어와 목적어가 있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과 형성 방법을 파악한다.

㉠과 ㉡은 파생어 용언으로 모두 어간이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과 ㉡의 어간이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되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과 ㉡은 나무를 의미하는 중세 국어의 단어가 각각 조사 ‘마다’, ‘와’와 결합한 것이고, ㉢과 ㉣은 하루를 의미하는 중세 국어의 단어가 조사 ‘도’, ‘은’과 결합한 것이다. 이 단어들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조사 ‘와’와 결합할 때 ‘나모’, ‘허르’의 형태로 나타나고,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남’, ‘홀르’의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각각 ‘나모마다’, ‘나모와’, ‘허르도’, ‘홀르’이다.

40. [출제의도] 매체 정보의 전달 방식을 이해한다.

(가)의 ‘진행자’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뿐, 방송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진행자’는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다가 질문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실시간 대화창에 글을 올리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③ (가)에서 ‘진행자’는 자신이 폭포를 봤던 경험을 떠올리며 ‘여행가’가 소개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였다. ④ (가)에서 ‘여행가’는 주상절리길이 총 길이 3.6km, 폭 1.5m의 잔도라고 설명함으로써 방송에서 소개하는 대상의 규모를 시청자가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⑤ (가)에서 ‘진행자’는 ‘잔도’를 궁금해하는 ‘코코넛’의 글 내용을 ‘여행가’에게 전달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여행가’는 ‘잔도’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41. [출제의도] 매체 참여자의 수용 양상에 대해 이해한다.

‘산토끼’는 지역 상품권을 받아 사용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였다. 또한, △△도청 누리집에서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것도 언급

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글향’은 ‘여행가’의 추천을 믿고 가 보겠다고 하였으나, ‘여행가’가 소개한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② ‘몽계구름’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방송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③ ‘야옹’은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방문 후기를 보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볼 수 없다. ④ ‘하회탈’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근거로 화장실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화장실 위치에 대한 정보는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가)에서 ‘여행가’는 다리에서 볼 수 있는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각각의 다리에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하면서 ‘화강암교’와 ‘현무암교’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나)에서는 두 다리의 시각적 이미지를 나란히 제시한 것이 아니라, 행사 일정에 포함된 공간인 유리 전망대와 폭포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조사 ‘의’는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격 조사이다. ㉠에 있는 격 조사 ‘의’는 앞에 있는 체언이 뒤에 있는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의 주체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여행자를 제외하도록 한 주체가 시청자임을 알 수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소통 양상을 이해한다.

㉡에서 ‘옹범’은 답장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상준’의 말에 동조하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면서 ‘요청 사항’ 게시판을 남기자고 건의했을 뿐,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을 절충했다고 볼 수는 없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다.

‘지수’는 ‘오늘의 식단’에 중식만이 아니라 석식 식단도 함께 보여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앱 화면에서 ‘오늘의 식단’에 중식 식단과 석식 식단이 모두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리’는 식단이 월간 식단표와 달라져도 알려주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했으므로, 석식 식단을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